

어머니의 자기분화, 심리적 통제 양육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안 유 선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에 대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17명을 대상으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Amos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자기분화는 심리적 통제 양육과 부적 상관을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은 심리적 통제 양육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기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통제 양육 수준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기분화에서 심리적 통제에 이르는 경로에서 불안의 간접효과가 유의함이 드러나고, 자녀수반자기가치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완전 매개모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낮은 자기분화가 높은 심리적 통제 양육에 영향을 직접 준다고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분화가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높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분화, 심리적 통제 양육, 불안, 자녀수반자기가치

* 본 논문은 안유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자녀를 훈육하는 양육자는 무엇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통제'는 양육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양육연구 초기에는 통제가 양육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해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통제를 가하는 양육은 통틀어 통제양육이라고,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chaefer, 1965b). 행동적 통제 양육은 권위적인 양육으로, 심리적 통제 양육은 권위주의적인 양육으로 불리며, 행동적 통제 양육과 심리적 통제 양육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Schaefer, 1965a). 행동적 통제 양육은 '구조' 양육으로(Barber, 1996; Grolnick & Pomerantz, 2009) 부르기도 하는데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규칙을 제공하고,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인정한다(Baumrind 1971; Grolnick & Pomerantz, 2009). 반면, 심리적 통제 양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원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신 죄책감 유도, 불안 유발, 애정 철회와 같은 방법으로 은밀히 통제가 이루어져(Barber, 2002) 자녀의 심리적 세계를 조정하고 억제한다. 심리적 통제 양육으로 자녀를 조정하면 자녀의 심리발달은 방해받는다. 양육자가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여 자녀의 심리세계를 침범할 경우, 자녀는 자기발견 기회를 상실하거나 부모로부터 분화 또는 개별화하는 과업을 성취하기 어렵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 양육이 정상 심리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심리적 통제 양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양육 연구는 행동적 통제 양육과 심리적 통제 양육으로 구분하는 유형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Stice, Barrera & Chassin, 1993). 1990년에 이르러 양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녀의 심리적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가능해졌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 양육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통제를 예측했다는 연구(안명희, 2010), 자녀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어머니들이 심리적 통제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검증된 연구(Ng, Pomerantz & Deng, 2013), 심리적 통제 양육과 자녀의 식이장애, 물질남용 등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Romm & Metzger, 2018) 등이 있다.

이러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는(Grolnick, et al, 2007) 점에서 심리적 통제 양육은 양육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양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양육 행동 유형, 유형과 자녀발달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박선영, 홍세희, 2013; 장혜림, 정익중, 2013; 김소연, 이동훈, 2013; 김종훈, 성지현, 2013, 조은주, 이은희, 2013). 반면, 양육 주체인 양육자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양육자 개인 특성은 양육유형에 영향을 주므로(Grolnick et al, 2007) 양육자 개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양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기분화는 양육자의 양육 태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특성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가족 분화 수준은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정문자, 최난경, 2004),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자기분화는 핵심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박경환, 2011).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분화 정도는 합리적인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와 권위주의와 통제 과보호를 예측하였다(박찬욱, 조성희,

2011). 자기분화의 개념을 살펴보면(Kerr, 2000),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성숙 정도로,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이며,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심리내적 차원은 지적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분화할 수 있는가를, 대인관계적 차원은 원가족으로부터 분화 정도를 나타내어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대인관계적 차원과 심리내적 차원에서의 분리가 수월하다(Kerr & Bowen, 1988).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심리적 적응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찬욱 등, 2011)는 말이다. 자기분화가 되지 않아 타인과 쉽게 융합되면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Peleg, 2005). 따라서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라 양육의 양상이 달라짐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분화는 가족 문제의 세대 간 전이, 부부관계에서의 결혼 적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결혼만족도나 결혼 안정성의 중요한 평가도구로 사용되었다(조은경, 정혜정, 2002). 한국 가족이 부부 관계의 중요성 이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Chun & MacDermid, 1997), 자기분화 개념을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양육 행동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자기분화 개념이 심리내적 적응과 함께 대인관계 상호작용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Skowron & Schmitt, 2003),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양육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자기분화는 양육자 심리내적 적응과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특성이다.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변인으로 자녀수반자기가치(Child-based self worth)가 있다. 수반적 자기가치(contingent self-worth)란 자신이나 타인의 평가에 수반되어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다(Deci & Ryan, 1995).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느끼는 영역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평가받을 때, 어떤 사람은 걸로 드러나지 않는 덕망이나 통솔력, 자립심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자기가 가치롭다고 느낀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Park, 2006). 자녀수반자기가치는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성취에 수반하는 것이다. 양육자가 자기의 가치를 자녀의 성공, 출세 등에서 찾는 것으로 Crocker와 Wolfe가 제시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이론(contingency of self-worth)에 근거한 세분화되고 확장된 자존감 변인이기도 하다. ‘자기가치의 수반성’이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개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며(Crocker, Wolfe, & C. T., 2001),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특정 기반 또는 근거이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자기가치의 수반성을 자존감과 비교설명하자면, 자존감이 성격 특질이며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폭 넓은 개념이라면, 자기가치의 수반성이란 사람마다 자신의 자존감을 뿌리내리게 되는 개인 고유 영역이다(Crocker et al, 2001).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영역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높다는 것은 양육자가 자기 가치를 자녀의 성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자녀의 개별화, 양육자-자녀 간의 심리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자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높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기분화는 자녀수반자기가치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중국인 어머니들의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북미 어머니들의 자녀수반자기가치보다 높고, 높은 자녀수반자기가치는 심리적 통제 양육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Ng, Pomerantz, & Deng, 201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 자녀수반자기가치 차이는 어머니의 개인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차이와 상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문화인 체면문화(face culture)에서는 서양의 품위문화(dignity culture)에서보다 자기 자신의 관점보다는 타인의 관점에 근거하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취는 북미권 어머니들보다는 중국인 어머니들에게 훨씬 중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수반자기가치를 갖을 수 있겠다. 중국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유독 자녀의 학업 성공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자기가치의 영역특성이론(domain specific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가치와 문화는 유교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철학적 체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Cheung & Pomerantz, 2011), 이러한 현상은 유교문화의 영향에 있으며 자녀 성적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개인의 전반적인 자존감은 삶의 영역에 고루 근거하여 판단되기 보다는 특정 영역에 근거하여 판단된다(Crocker et al, 2001). 자녀수반자기가치 측정 도구를 개발한 Eaton 등(2004)은 양육자가 자신의 가치를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정도를 양육자의 수반적 자기가치(Parental Contingent Self-Wort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기반 가치(Maternal Child-Based Wort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수반성 영역 이론(Crocker et al, 2001)의 수반성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반' 대신 '수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수반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녀수반자기가치'로 명명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인간은 자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자신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치수반 영역에서 자기타당화 목표(self-validation goals)를 설정하여 행동을 결정한다(Park, 2006). 자신이 가치롭다고 느껴지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긍정 정서는 자존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고(Carver, 2003), 긍정적 정서 경험 욕구는 매우 강렬하여 때로는 심리적인 압력으로(Grolnick et al, 2007)까지 지각된다. 높은 자존감 유지가 중요해질수록, 지속적이고도 파괴적인 자기타당화 행동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다. 1990년도까지 이루어진 초창기 자존감 연구는 높은 자존감이 학업 및 업무의 높은 성취를 예측하고, 낮은 자존감이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할 것이라는 등의 자존감의 사회적 순기능을 주로 다루었다(Kaplan, 1980). 그런데 2000년도를 전후로 자존감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주장과 함께, 자존감 연구 영역에서 정설처럼 유지되었던 가설을 재검증하면서 자존감 추구로 인해 치루고 있는 대가들을 고찰하고 자존감 추구의 역기능에 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과거 연구의 재검증을 통하여 Baumeister와 그의 동료들은 자존감과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성공의 상관 연구 결과가 측정도구의 문제, 혼입변인 또는 통계적 해석 등의 오류로 의미하지 않거나

과대평가되었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자존감 추구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주는 함의가 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불안에 민감해진다(Deci & Ryan, 1995).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학력주의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대학은 서열화되고 피라미드 구조와 같아서 소수의 학생만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이혜영, 1995). 자녀의 성적 관리에 책임감을 느끼는 어머니에게 이러한 상황은 양육행동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Grolnick et al, 2007). 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대표적인 심리적 반응은 불안이다.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게 어려운 입시경쟁을 치러내도록 조력해야 하는 어머니들은 불안을 지각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자녀를 통제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인지중심 대처라기보다는 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 반응하는 정서중심 대처라는 점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심리적 통제 양육 사이에는 심리적 통제 양육에 선행하는 정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Orchard, Cooper, & Creswell, 2013).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불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통제 양육에 이르는 경로를 예측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불안 증상이 자녀의 정신 건강 발달지표를 예측하며 자녀의 불안 및 우울 등의 내현화 문제를 예측함은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밝혀졌으나, 어머니의 불안증상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Beebe, Steele, Jaffe, Buck, Chen, Cohen, & Feldstein, 2011). 진행된 연구로는, 어머니의 높은 불안 증상이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편향을 가져와 특정 유아의 행동 감시 활동은 활성화하고 정서적 교감은 철수함을 검증한 연구(Beebe et al, 2011)가 있으며,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부모들과 그들의 양육행동의 상관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덜 드러내고, 과도한 비판, 자녀의 유능감에 대한 불신은 더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Budinger, Drazdowski, Ginsburg, 2013) 등이 있다. 자존감의 위협이나 상실 경험은 자신의 존재에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껴지며 자존감 상실시 경험하는 불안은 공포에 가까운 경험이다(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97). Greenberg 등(1997)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영역에 대한 실패에 특히 민감해지므로,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수반자기가치 영역에서 자존감이 유지되지 못하면, 높은 불안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을 설정하여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각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분화 수준은 통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분화 정도는 합리적인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와

권위주의와 통제, 과보호를 예측한다(박찬옥 등, 2011). 인성적 특성인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자녀에 대해 ‘과보호와 통제’ 행동을 보인다는(조상희, 박찬옥, 2012) 연구 등에서 양육자 자기분화가 통제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대표적인 가족치료 전문가인 보웬의 치료 목표는 자기분화를 촉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불안이 증가할 때, 자기분화가 덜 된 사람들은 의존과 융합이 강해지는데, 그럴수록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증가하며(Bowen, 1976, 재인용), 관계에서 불안을 덜 느끼게 되면 기능적 수준의 분화가 상승되면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김정택, 심혜숙, 1993). 자녀수반자기가치 역시 심리적 통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통제 양육 연구(Eaton et al, 재인용)를 시작으로 미국인 어머니의 자기보고와 평정자의 평가를 포함한 실험연구(Grolnick et al, 2007) 등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중국계 어머니와 유럽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Ng et al, 2013)가 이루어졌다. 세 연구 모두에서 어머니의 높은 자녀수반자기가치는 통제적 양육을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근거로, 자기분화와 불안, 자기분화와 자녀수반자기가치, 자녀수반자기가치와 심리적 통제 양육의 경로를 추론해볼 수 있다. 국내 자기분화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드러나는데, 자존감과 상관계에서도 그러하다. 자존감은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자아 평가로(Rosenberg, 1979)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족관계와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자기분화와 함께 경험적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자존감이 자기분화

와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여 자기분화가 자존감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하면(이수경, 김혜원, 한혜성, 백인혜,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자기분화를 통한 개별화가 오히려 낮은 자존감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Chun & MacDermind, 1997). 본 연구의 목표는 양육자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건강한 심리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통제 양육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머니의 특성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의 관계가 불안과 자녀수반자기가치 등의 변인 투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이르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종합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 변수 간의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분화는 심리적 통제 양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 심리적 통제 양육, 자기분화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방 법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모집된

초, 중,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어머니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과 지필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3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다.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였다. 단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제외한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은 포함하였으며, 총 217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217명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92세로(표준편차 4.50세), 29세에서 53세까지 분포하였다. 고등학교 이하 졸업이 45명(18.1%), 전문대 졸업은 22명(8.8%), 대학교 졸업은 108명(43.3%), 대학원 졸업은 31명(12.4%), 학력을 기입하지 않은 대상이 11명(17.2%)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98명(39.3%), 정규직 및 전문직 64명(25.7%), 자영업 13명(5.2%), 프리랜서 20명(8.3%), 임시직 11명(4.4%) 및 직업을 기입하지 않은 대상이 11명(17.3%)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들의 누적근무 연수를 조사한 결과, 재직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이 11명(4.4%), 1~5년간 근무한 어머니들이 45명(18.1%), 6~10년간 근무한 어머니들이 43명(17.3%), 10년 이상 근무한 어머니들이 107명(42.9%), 응답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11명(17.3%)이었다. 자녀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자녀 수는 1.79명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한국형 자기분화척도 검사(정혜정, 조은경, 2007)는 Skowron과 Schmit(2003)의 자기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 DSI-R)와 Licht와 Chabot(2006)의 정서적 분화 척도(Chabot Emotional Differentiation Scale; CEDS), 제석봉(1989)과 전춘애(1994)의 분화 척도 등을 종합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제작한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 9문항, 정서적 융합 5문항, 타인과의 융합 7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 자기입장 8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자기분화 척도(DSI-R) 사용 매뉴얼에는 측정의 대상을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한다. 하상희와 정혜정의 연구(2008)의 전체 자기분화척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이하 α) = .82이었으며, 본 연구 역시 전체 자기분화척도 α = .82이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반응' 신뢰도 α = .68, '자기입장' α = .77, '타인과의 융합', α = .69, '정서적 단절' α = .56, '정서적 융합', α = .75로 나타났다.

자녀수반자기가치 척도

자신의 가치감을 자녀의 성취도에 기반을 두는 자녀가치 수반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Eaton과 Pomerantz(2004)가 개발한 자녀수반자기가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와 동등한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번역 및 역번역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영어권 국가에서 15년간 거주하였으며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통번역 전문가가 교정한 후, 역시 2개 국어에 능통한 상담전공 석사생이 역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항과 역번역 문항을 비교하며 재교정했다.

최종적으로, 상담심리 전공 교수가 가독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자녀가치 수반성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내 아이가 실패하면, 난 내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진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는 자주 내 아이의 성취와 연관이 있다.' 와 같은 문항에 7점 Likert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중국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NG, Pomerantz, & Deng, 2013)에서는 $\alpha = .86-.89$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alpha = .90$ 이었다.

특성 불안 검사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83)가 정상적인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을 이장호, 한덕웅, 전경구(199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 검사 Y형(1996) 중에서 특성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상태 불안은 특정한 순간에 자율 신경계 활성화 또는 흥분 유발에 의한 긴장으로 발생한 정서 상태이고, 특성 불안은 비교적 안정된 불안 성향이다(이장호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반자기가치, 양육행동, 자기분화 등의 변인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적 특징을 지닌 특성불안 문항을 측정에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나는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다.', '나는 여러 생각들로 마음이 혼란스럽다.'와 같은 문항에 4점 Likert로(1= 그렇지 않다, 4= 언제나 그렇다) 평정한다. 총점 범위는 20점~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장호 등의 연구(1996)에서 특성불안검사의 내적합치도 $\alpha = .90$, 본 연구에서 $\alpha = .94$ 였다.

한국판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을 측정하기 위하여 Skinner, Johnson, 그리고 Snyder(2005)가 제작한 PSCQ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정교영과 신희천(2011)의 한국판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 '거부', '구조', '혼란', '자율성 지지', '강제' 등 6가지 양육행동 중 심리적 통제를 구인할 수 있는 '거부', '강제', '혼란' 세 가지 요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거부 5문항, 강제 5문항, 혼란 4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우리 아이는 매번 나와 싸운다.' '우리 아이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항에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아주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정교영과 신희천(2011)의 연구에서 PSCQ의 $\alpha = .61-.8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alpha = .66-.83$ 범위이며 전체 $\alpha = .71$ 이었다.

자료분석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 등의 잠재 변인 간에 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며, SPSS 21.0과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 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둘째, 구조모형의 모수의 수를 줄이고 오차를 감소 시키려는 목적으로 문항꾸러미를 작성했다. 셋째,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보고, 연구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는지 살펴 보았다. 넷째, 연구가설 구조모형을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Baron & Kenny, 1986).

결 과

기술통계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했다.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정상성 판단기준, 2와 4를 각각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했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분석

각 변인의 상관 관계와 하위요인 간의 상관 분석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분화는 자녀수반자가치와 부적상관 ($r=-.16, p<.05$), 불안과 부적상관($r=-.23, p<.01$), 심리적 통제 양육과 부적상관($r=-.08, p<.05$)이 있었다. 자녀수

표 1.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217)

변인	M	SD	왜도	첨도
자기분화	1.51	.56	-.17	-.10
자녀수반자기가치	2.05	.49	.78	.92
불안	3.79	1.05	.21	-.40
심리적 통제 양육	2.09	.50	-.11	-.55

표 2.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N=217)

	1	2	3	4	1-1	1-2	1-3	4-1	4-2	4-3
1. 자기분화	1									
2. 자녀수반자기가치	-.16*	1								
3. 불안	-.23**	.37**	1							
4. 심리적 통제 양육	-.08*	.37**	.59**	1						
1-1.자기분화-심리내적차원	.80**	-.18**	-.30**	-.18**	1					
1-2.자기분화-대인관계차원	.84**	-.01**	.01**	.10**	.43**	1				
1-3.자기분화-정서적응합	.81**	-.24**	-.30**	-.18**	.52**	.55**	1			
4-1.심리적통제 양육-거부	.01	.32**	.49**	.87**	-.08	.17	-.09**	1		
4-2.심리적통제 양육-혼란	-.13*	.29**	.46**	.75**	-.23**	-.01	-.13**	.44**	1	
4-3.심리적통제 양육-강제	-.09	.29**	.50**	.86**	-.14**	-.06	-.20**	.55**	.48**	1

* $p<.05$, ** $p<.01$, *** $p<.001$

반자기가치는 불안과 정적상관($r=.37, p<.01$), 심리적 통제 양육과 정적상관($r=.37, p<.01$)이 나타났다. 불안은 심리적 통제 양육과 정적상관($r=.59, p<.01$)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기분화-심리내적 차원은 심리적 통제 양육-거부와 부적 상관($r=-.08, p<.01$), 심리적 통제 양육-혼란과 부적 상관($r=-.23, p<.01$), 심리적 통제 양육-강제와 부적 상관($r=-.14, p<.01$)이 있었다. 자기분화-대인관계차원과 심리적 통제 하위 요인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분화-정서적 융합은 심리적 통제 양육-거부와 부적 상관($r=-.09, p<.01$), 심리적 통제 양육-혼란과 부적 상관($r=-.13, p<.01$), 심리적 통제 양육-강제와 부적상관($r=-.20, p<.01$)이 있었다.

변인들이 자기분화, 자녀수반가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 등 4개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 $\chi^2=109.106(df=59, N=217)$, CFI=.971, TLI=.955, RMSEA=.062(90% CI=.043-.080)로 나타났다. 이상의 χ^2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연구의 최종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 요인부하량은 자기분화 .62-.87, 자녀수반가치 .88-.90, 불안 .88-.91, 심리적 통제 양육 .64-.74 ($p<.001$)로 13개 관측변인들이 4개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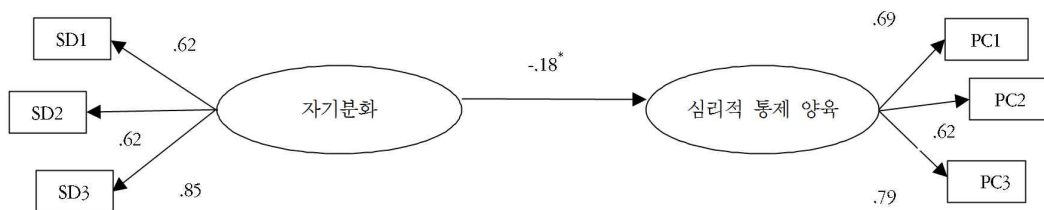
구조모형 검증의 사전 단계로, 13개의 관측

총효과 구조모형 검증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의 관계에서

표 3.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90%	
							low	High
측정모형	109.106	59	.000	.971	.955	.062	.043	.080



* $p<.05$, ** $p<.01$, *** $p<.001$

SD1=심리내적 차원 요인 합, SD2=대인관계 차원 요인합, SD3=정서적 융합 요인 합

PC1= 거부 요인 합, PC2= 혼란 요인 합, PC3= 강제요인 합

그림 1. 총효과검증 (* $p<.05$)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예측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효과 구조모형을 설정한 결과(그림 1),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표준화 측정값 $-.18$ 이었다. 비표준화 측정값은 $-.43$, 표준오차 $.21$ 이었다. 이 값의 임계치는 -2.03 으로 절대값 1.96 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05$ 에서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다. 즉,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통제 양육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분매개 및 완전매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

육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였다.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 사이에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이 개입된 경우,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 관계의 유의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채택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그림 3에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중, 상대적 적합도 지수 CFI는 $.97$, TLI는 $.96$ 으로, $.90$ 이상의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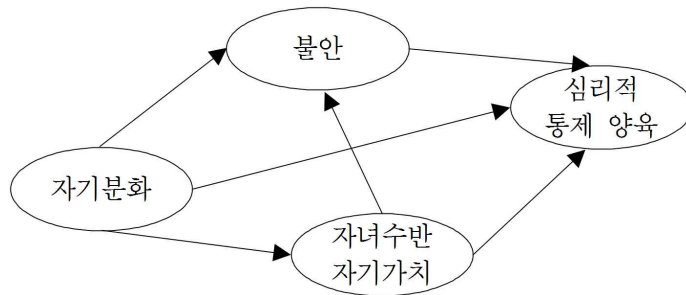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부분매개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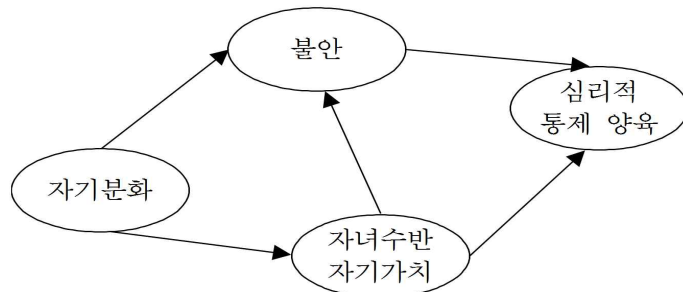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완전매개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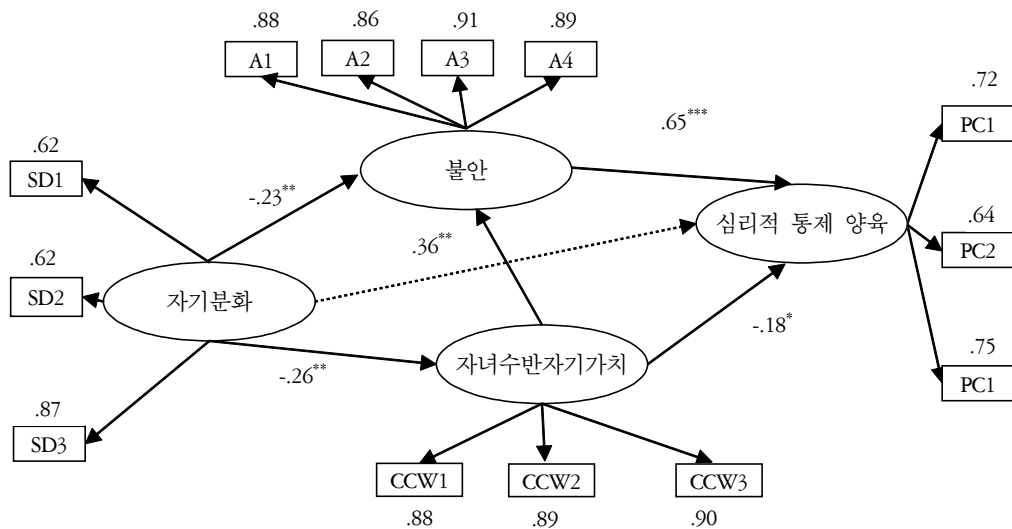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90%	
							low	High
연구모형	109.11	59	.000	.97	.96	.06	.04	.08
경쟁모형	110.06	60	.000	.97	.96	.06	.04	.08

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는 .06(90% 신뢰구간 .04 - .08)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후, 두 모형 간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는 $\chi^2(1, 217) = 0.949$ 이다. 이는 자유도 차이 1에 대한 χ^2 임계값인 3.84보다 작으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χ^2 검증 결과가 유

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단한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0). 자유도 1이 증가하여도 모형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복잡한 부분매개보다 더 간단한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을 기각하고 경쟁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 계수와 모수추정치는 그림 4와 표 5에 각각 제시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SD1= 심리내적 차원 요인 합, SD2= 대인관계 차원 요인합, SD3= 정서적 융합 요인 합, PC1= 거부 요인 합, PC2= 혼란 요인 합, PC3= 강제요인 합. A1, A2, A3, A4= 불안 문항꾸러미, CCW1, CCW2, CCW3= 자녀수반자기가치 문항꾸러미

그림 4. 최종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표 5.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SE	P two-tailed
자기분화	→ 불안	-3.32	-.23	1.12	.01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1.54	-.26	.48	.01
자녀수반자기가치	→ 심리적 통제 양육	.08	.18	.03	.05
자녀수반자기가치	→ 불안	.90	.36	.18	.00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11	.65	.01	.00

Cohen(2003)에 따르면 표준화 경로계수는 절대값이 .10이하이면 효과의 크기가 ‘작다’고 해석하며, .30정도는 ‘보통’, .50 이상이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01, .01, 또는 .05에서 각각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경로별 모수추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인 심리적 통제 양육에 대한 자녀수반자기가치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보통 정도이며($\beta=.18, p<.05$), 그에 비해 불안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큰 편이었다($\beta=.65, p<.05$). 한편, 매개변인 불안에 대해서는 자기분화가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적 영향을 미쳤고($\beta=-.23, p<.01$), 자녀수반자기가치는 불안에 보통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36, p<.001$). 자기분화는 자녀수반자기가치에 보통 수준 이하($\beta=-.26, p<.01$)의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Baron & Kenny, 1986). 하나는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직접 가는 직접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이다. 간접효과가 유의할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간접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의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총효과를 표시한다. Amos에서는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자녀수반자기가치를 통한 간접효과와 불안을 통한 간접효과로 분리하지 않고 두 효과를 합하여 보고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각 변인 간 경로계수와 그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해야 하며(홍세희, 2006),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검증 또는 Bootstrap 절차로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Sobel 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는 다중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변수와 관련된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모형은 다중매개모형에 해당되며, 자기분화에서 불안을 거쳐 심리적 통제 양육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와 자기분화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는 거쳐 심리적 통제 양육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특정간접효과이다.

특정간접효과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자기분화와 불안의 매개변인 간접효과를 Sobel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분화

표 6 최종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Z_{ab} > \pm 1.96$

독립변수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Z_{ab})	총효과
	매개변수	종속변수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0.75	-1.86
자기분화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2.75 ^{***})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		심리적 통제 양육		(-1.95)

→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 경로의 경우, 불안의 간접효과 검증결과, Z_{ab} 값이 -2.75로 .001 수준에서 그 절대값이 임계치 1.96보다 크므로 유의하여, Sobel test 결과, 완전매개모형 변인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심리적 통제 양육 경우, 자녀수반자기가치 간접효과는 Z_{ab} 값이 -1.955로 .05수준에서 그 절대값이 임계치 1.96보다 크지 못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rocker와 Wolfe(2001)의 자기 가치 영역특성이론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기분화와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이 심리적 통제 양육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지 살펴보고,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이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앞서 제시한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과 심리적 통제 양육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 보았다.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은 심리적

통제 양육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은 심리적 통제 양육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했다. 자기분화는 심리적 통제 양육 변인만을 설명할 때는 심리적 통제 양육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구축된 구조모형 안에서는 심리적 통제 양육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설명하는 경로에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이 투입되면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간접효과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직접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수반자기가치는 심리적 통제 양육을 유의하게 예측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성취에 수반할수록 심리적 통제 양육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 역시 심리적 통제 양육을 유의하게 예측했는데 매우 높은 효과크기($\beta=.65$)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실패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자신이 가치를 두는 영역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Crocker & Park, 2004)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심리적 통제 양육을 행하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기제에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성취에 수반할수록 심리적 통제 양육을 많이 하게 된다는 Ng 등(2013)의 선행 연구, 불안이 높은 부모들이 온정적이고 긍정적

인 정서를 덜 드러내고, 과도한 비판, 자녀의 유능감에 대한 불신은 더 드러낸다는 Budinger 등(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녀들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부모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자녀수반자기가치에 수반된 자존감 유지를 위한 지나친 행동은 자녀의 건강한 심리 발달을 방해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겠다. 또한 이 결과는 실패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자신이 가치를 두는 영역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Crocker & Park, 2004)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자기분화와 자녀수반자기가치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불안의 설명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자기분화, 자녀수반자기가치, 불안 모두 어머니의 성격 및 상태를 나타내는 특징들이지만, 자기분화와 자녀수반자기가치는 어머니들이 인지적으로 의식하고 처리하는 개념이라면, 불안은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적인 처리이며 의식 수준에서 발현되지 않는 특징이기 때문에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지지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자기분화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예측하는가를 총효과 검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자기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통제 양육 수준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Grolnick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자기분화가 통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선행연구(박찬욱, 조성희, 2011)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기분화 변인은 연구

대상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 지표와 관련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변인이다. 그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국내거주 한국여성, 미주거주 한국여성, 미주거주 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분화 정도와 가족기능에 대한 상관연구(Kim, 2015)에서는 연구대상의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자기분화가 잘 될수록 가족이 잘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낮은 어머니들이 심리적 통제 양육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Kim(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자기분화와 심리적 통제 양육 관계를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지지되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비교하였을 때,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모형의 복잡성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하게 크지 않아 부분매개모형 대신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간접효과 검증결과, 불안은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자녀수반자기가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분화는 심리적 통제 양육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불안을 매개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낮은 자기분화 수준이 심리적 통제 양육을 직접 촉발하기보다, 낮은 자기분화가 작동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불안과 자녀수반자기가치를 상승시켜서 자녀에게 해로운 심리적 통제 양육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분화의 수준이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Bowen(1976)의 이론, 불안의 수준이 높을 경우 심리적 통제 양육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Beebe(2011) 등의 연구, 자녀수반자기가치

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를 더 할 것이라는 Ng(2013)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는 어머니의 자존감,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상담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자기분화, 불안, 자녀수반자기가치가 심리적 통제 양육 간의 상관은 심리적 통제 양육을 하는 어머니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심리적 통제 양육으로 빚어지는 자녀양육 문제가 있는 어머니를 심리상담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 간에 벌어지는 갈등 양상 이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 학습이 상담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부모 자녀 상호작용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개입 외에,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역시 상담목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기분화가 되지 않아 자신과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못하거나, 불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자존감 대부분을 자녀의 성취에 기반하여 느끼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하는 경우라면, 이제 가지 변인에 대한 상담개입이 심리적 통제 양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열한 학습경쟁이 벌어지고 자녀의 학습성과나 성취에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이해는 건강한 어머니 자녀 관계 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분화에서 심리적 통제 유형에 이르는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경로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 1)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2) 자기분화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 본 연구를 통해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자기분화 정도가 심리적 통제

양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불안은 심리적 통제 양육을 가장 많이 설명하며 직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 양육 행동을 하는 어머니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심리적 통제 양육에 대한 불안의 높은 설명력을 고려할 때, 다른 심리적 특성보다 내담자의 불안을 먼저 다루는 것을 제안한다. 불안의 원인과 양상들을 탐색하고 개입하는 것이 심리적 통제 양육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원인을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취에서 자신의 가치감을 찾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 Ng 등 (2013)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자녀수반자기가치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예측하는 정도를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Ng 등이 중국계 어머니와 유럽계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녀수반자기가치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예측한다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자녀수반자기가치는 자존감으로부터 세분화된 개념인데, 특정 영역에 국한된 극단적인 자기타당화 목표와 타당화 행동은 심리적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Crocker et al, 2004). 따라서 자존감 유지를 위한 타당화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취를 통한 자존감 추구가 심리적 통제 양육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어머니나 자녀 모두의 궁극적 행복과 심리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자녀수반자기가치에 대한 연구

는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담실제에 대한 적용점과 학문적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이를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 → 자녀수반자기가치 → 불안 → 심리적 통제 양육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작용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불안을 촉발하게 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를 세분화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 불안의 설명력이 크고 자녀수반자기가치가 높아도 불안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 양육이 촉발되지 않는 점에서 두 변인사이의 경로에 존재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양육자 변인들 중에서 어떤 정서적 성격 특징들이 양육자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자녀수반자기가치 척도는 중국인과 미국인 어머니들 간의 자녀수반자기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본 연구를 위하여 번안 작업을 거쳐, 상담심리학과 교수의 안면 타당도를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육연구가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자기분화, 불안, 자녀

수반자기가치 등의 개인특성은 아버지를 대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단 지금까지의 양육 연구가 지나치게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자 주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정택, 심혜숙 (1993). 자아분화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호, 31-35.
- 김종훈, 성지현 (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7.
- 류정희 (2012).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5-335.
- 박선영, 홍세희 (2013). 자녀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자율지향적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21.
- 박경환 (2011). 직장인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43-264.
- 박찬옥, 조성희 (2011).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육학회, 15(2), 537-559.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14(1), 319-348.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양난미, 이동귀, 박현주. (2013). 자존감 평가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3), 2011-2026.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71-298.
- 이수경, 김혜원, 한혜성, 백인혜. (2012). 대학생이 지각한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919-2941.
- 이장호, 한덕웅, 전경구(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1-14.
- 이혜영 (1995). 학력주의와 청소년의 삶.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20), 30-45.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0), 33-61.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 정문자, 최난경. (2004).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3), 87-99.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조상희, 박찬욱. (2012). Bowen 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16(2), 139-166.
- 조은경, 정혜정 (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1-16.
-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숙, 황혜신 (2013). 저소득층 유아의 기질과 탄력성과의 관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3), 341-353.
- 하상희, 정혜정 (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한덕웅, 이장호, & 전경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 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한동현, 김완일 (2013).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 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247-263.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지아. (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현상과 인식*, 38(1/2), 205-228.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1), 32-50.
- Bagley, Christopher, & Mallick, Kankayhn. (1996). Cross-cultural studies of self-esteem, self-differentiaion and stress in school students. *Research in education*, 56, 21-30.
- Bao, X. H., & Lam, S. F. (2008). Who makes the choice? Rethinking the role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hinese children's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9(2), 269-283.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p2), 1.
- Beebe, B., Steele, M., Jaffe, J., Buck, K. A., Chen, H., Cohen, P., & Feldstein, S. (2011). Maternal anxiety symptoms and mother - infant self and interactive contingenc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2(2), 174-206.
- Bowen.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 (e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Budinger, M. C., Drazdowski, T. K., & Ginsburg, G. S. (2013). Anxiety-promoting parent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anxious parents with and without social anxiety disorder.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3), 412-418.
- Browne & Cudeck. (1992). FITMOD: Point and interval estimates of measures of fir of a model. *Department of Psychology. Ohio State University*.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 Cheung, C. S. S., & Pomerantz, E. M. (2011).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mplications for children's academic and 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82(3), 932-950.
- Choi, Hyung-Jai. (2013). Another Hurdle for Married Women: Private Tutoring of Children and Women's Labor In Korea.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19(2). 92-121.
- Chun, Y. J., & MacDermid, S. M. (1997). Perceptions of family differentiation,

- individuation,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451-462.
- Chung, H., & Gale, J. (2006). Comparing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3), 367-381.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J: Erlbaum.
- Crocker, J. (2002a). Contingencies of Self-Worth: Implications for Self-Regulation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Self and Identity*, 1, 143-149.
- Crocker, J. (2002b). The costs of seeking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597-615.
- Crocker, J., Brook, A. T., Niiya, Y., & Villacorta, M. (2006). The Pursuit of Self Esteem: Contingencies of Self Worth and Self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749-1772.
- Crocker, J., & Luhtanen, R. K. (2003). Level of self-esteem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Unique effects on academic, social, and financi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6), 701-712.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Crocker, J., & Park, L. E. (2003). Seeking self-esteem: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elf-worth.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291-313.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avies, J., & Brember, I. (1999). Reading and mathematics attainments and self-esteem in years 2 and 6-an eight-year cross-sectional study. *Educational Studies*, 25, 145-157.
- Deci, E. L., & Ryan, R. M. (1995).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31-49).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 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319-353
- Eaton, M. M. & Pomerantz, E. M. (2004). 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Fleming, W. M., & Anderson, S. A. (1986).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 person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3), 311-315.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New York: Springer, 189-212
- Grolnick, W. S., Gurland, S. T., DeCoursey, W., & Jacob, K.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others' autonomy suppor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1), 143.
- Grolnick, W. S., Price, C. E., Beiswenger, K. L., & Sauck, C. C. (2007). Evaluative pressure in mothers: Effects of situatio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autonomy supportive versus controll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3(4), 991.
- Grolnick, W. S., & Pomerantz, E. M. (2009). Issues and challenges in studying parental control: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65-170.
- Hansford, B.C., & Hattie, J.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 123-142.
- Harmon-Jones, E., Simon, L.,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 McGregor, H. (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self-esteem: Evidence that increased self-esteem reduced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4.
- Hong, J. J. (2005). Social Values and Self-construal FN the expression of social anxiety; A cross cultural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r, M. E. (2000). *Chronis anxiety and defining a self*. George Town, Family center, 35-58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 Kim, H., Prouty, A. M., Smith, D. B., Ko, M. J., Wetchler, J. L., & Oh, J. E. (2015). Differentiation and Healthy Family Functioning of Koreans in South Korea, Sou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White America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1), 72-85.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227-258.
- Kim, Y.-H., & Cohen, D. (2010). Information, Perspective, and judgements about the self in face and dignity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6, 537-550.
- Licht, C., & Chabot, D. (2006). The Chabot emotional differentiation scale: A theoretically and psychometrically sound instrument for measuring Bowen's intrapsychic aspect of differenti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2), 167-180.
- Miller, R. B., Anderson, S., & Keala, D. K.

- (2004). In Bowen theory valid? A review of basic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 281-300.
- Ng, F. F. Y., Pomerantz, E. M., & Deng, C. (2013).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000), 1-15.
- OECD (2012). OECD Employment Outlook. *Labour Force Statistics*, Stat Extracts, OECD,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
- Orchard, F., Cooper, P. J., & Creswell, C. (2013). Interpretation and expectations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s with matern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0, 1-9.
- Park, L. E. (2006).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validation goals, and threats to self: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10-B).
- Peleg, O. R. A. (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2), 167-183.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omm, K. F., & Metzger, A. (2018).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Role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Schaefer, E. S. (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aefer, E. S. (1965b).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 54-61.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 Vagg, P. R. (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BiB 2010, 180.
- Stice, E., Barrera, M. & Chassin, L. J. *Abnorm Child Psychol (1993) 21: 609.*
- 1차원고접수 : 2019. 04. 19.
심사통과접수 : 2019. 06. 19.
최종원고접수 : 2019. 06. 28.

Dual Mediation Effect of Child Contingent Self Worth and Anxiety in the relation of Self 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of Mother

Yoo Sun Ahn

Sung 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 among self 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based on domain specific theory of self worth.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 a model of the mediating mechanisms of child contingent self worth and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Associations among four variables were examined through a correlation analysis. The mediation effect of self 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was evalua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 survey was conducted to 217 Korean mothers who hav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The current study concluded as follows: Child Contingent Self Worth and Anxiety showed positive relation with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Lower self differentiation predicted higher psychological controlling parenting. The relation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was mediated by child contingent self worth and anxiet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Parenting Control, Anxiety, Child Contingent Self-Worth*